마음을 담아 포장하기

이 혜 경

성탄이면 누군가에게 카드를 보내거나 선물을 건네곤 한다.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다. 그런데, 포장되어 있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자. 선물을 준 사람의 성의와 상관없이 그 선물의 의미마저 퇴색해 버릴 것이다.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진다. 우리의 그런 마음을 선물보다 더 예쁘게 포장해 보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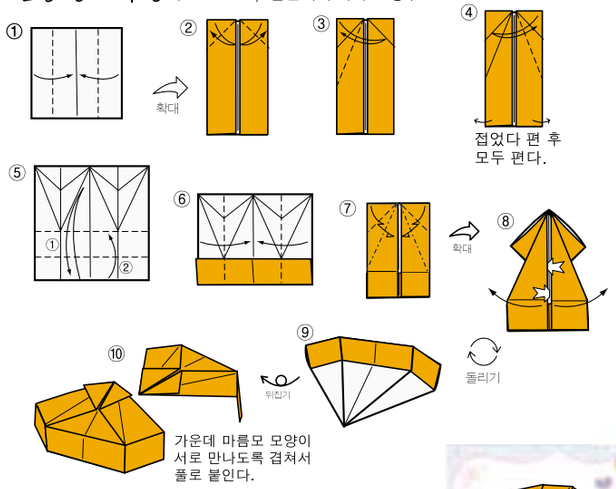
어른들에게 선물을 할 때면 정성스러운 포장이 그 선물의 가치를 더해 줄 것이며, 호기심 가득한 눈을 반짝이며 선물을 기다리고 있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직접 만든 예쁜 포장 속에 선물을 넣어 준다면 행복은 두 배가 될 것이다. 또, 이곳에 소개한 몇 가지 포장법을 활용해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해도 좋겠다. 이런 포장법을 활용하면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도 더 특별해지지 않을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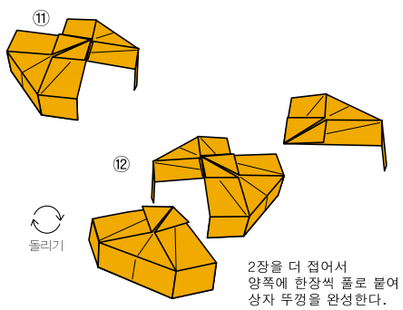
무엇으로 활용하든 내가 직접 만들었다는 기쁨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것이다. 이번 성탄에는 마음을 담은 여러 가지 예쁜 포장법을 익혀 마음껏 활용해 보자.

이혜경_로사
(사)한국종이문화재단 자문위원이자 한국종이접기 협회 지도 사범이며 「종이접기나라」 3권과 4권의 저자다. 2006년, 가톨릭 디다케의 '세모네모 종이접기' 필자였으며 현재 '이혜경의 종이접기나라'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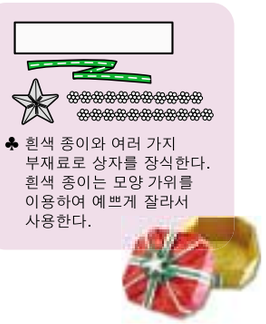
크리스마스 포장 상자

선물 상자 뚜껑 (16×16 cm, 빨간색 무늬지-4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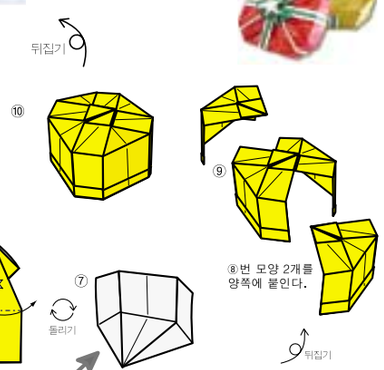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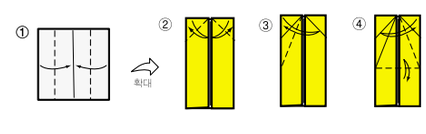
♣ 뚜껑과 아래 상자를
끼워서 완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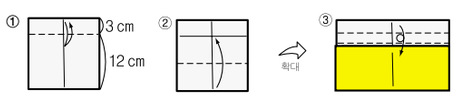
♣ 흰색 종이와 여러 가지
부재료로 상자를 장식한다.
흰색 종이는 모양 가위를
이용하여 예쁘게 잘라서
사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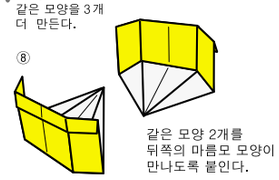


선물 상자 아래 상자A (15×15 cm, 금색 무늬지-4장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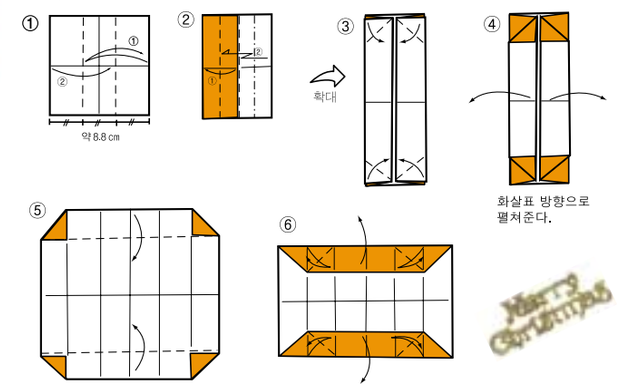
선물 상자 아래 상자B (15×15 cm, 금색 무늬지-4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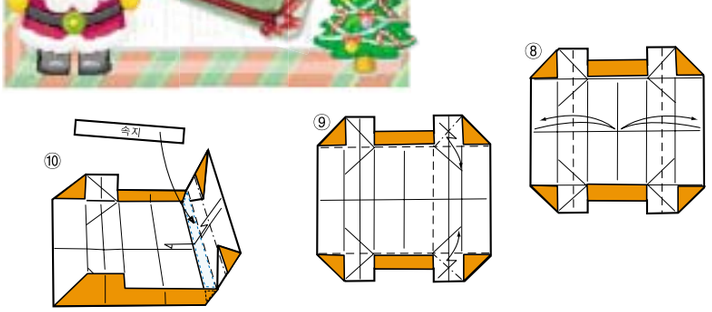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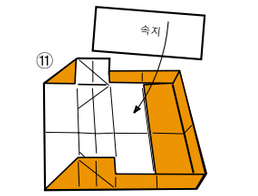


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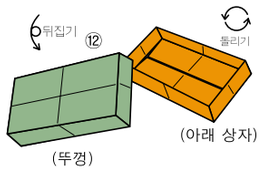
뚜껑, 아래 상자 (33×33 cm, 초록색 1장 / 32×32 cm, 빨간색 1장)







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접는다.
♣ 부분에 속지를
풀로 붙여놓고 접는다.
(넓은 속지: 10.5×21 c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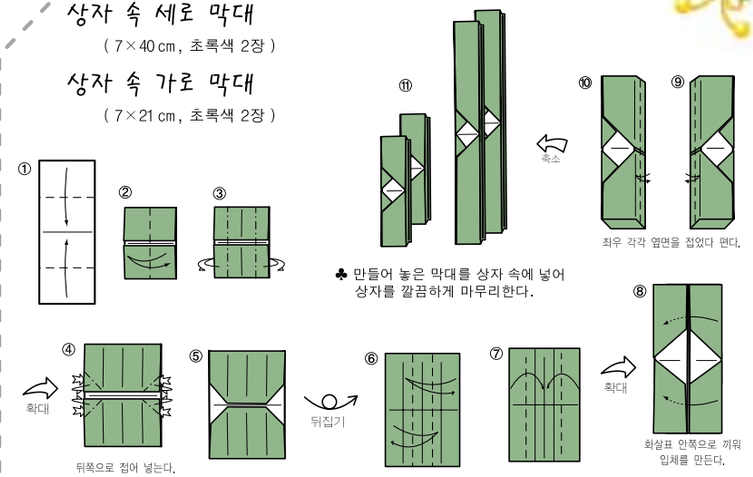


상자 속 세로 막대

(7×40 cm, 초록색 2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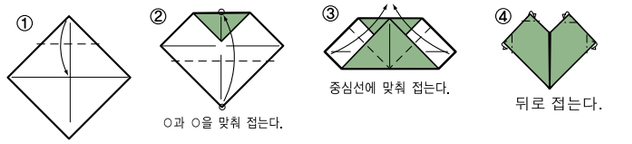
상자 속 가로 막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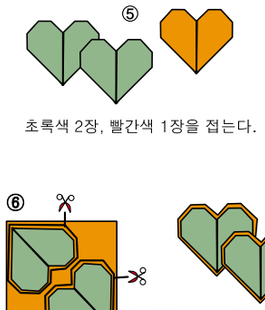
(7×21 cm, 초록색 2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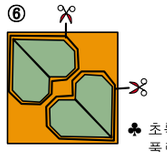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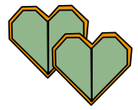
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2

하트 장식 (5×5㎝, 초록색 2장, 빨간색 2장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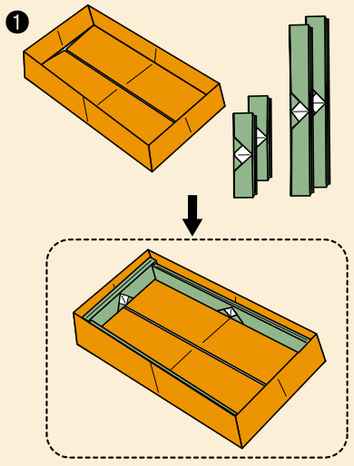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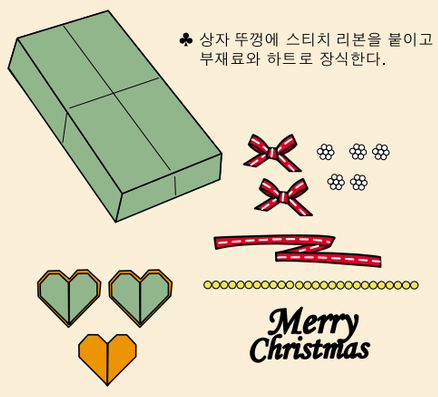


♣ 초록색 하트를 빨간색 종이에 풀로 붙인 다음 여유를 남기고 자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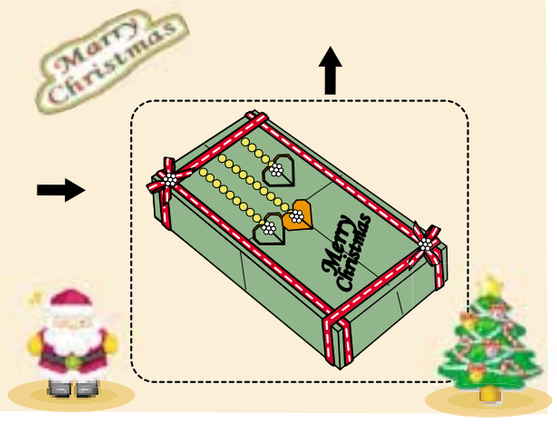
(조립 방법)



♣ 가로 막대와 세로 막대를 아래 상자의 테두리에 꽂아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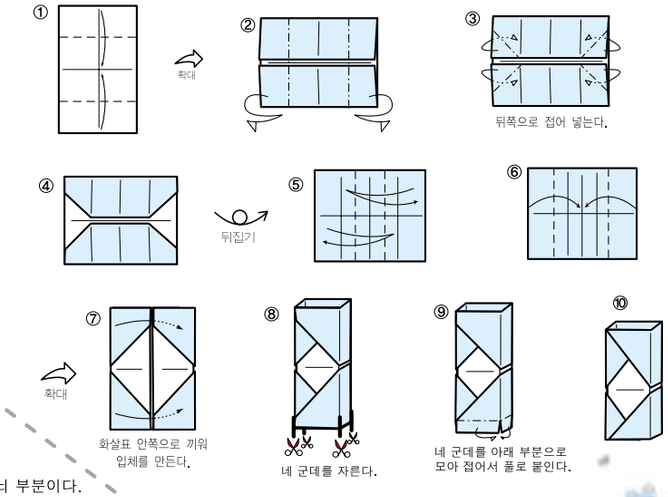


♣ 상자 뚜껑에 스티치 리본을 붙이고 부재료와 하트로 장식한다.



양말 모양의 선물 주머니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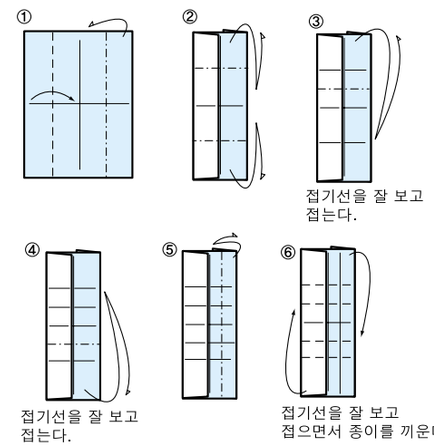
장화의 기둥 (39×26.5㎝, 파란색 양면 무늬지) ♣ 흰색 부분이 열매 무늬 부분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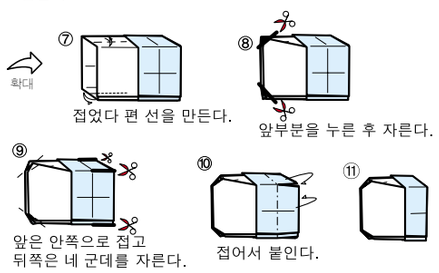


장화의 앞코

(20×27㎝, 파란색 양면 무늬지)

♣ 흰색 부분이 열매 무늬 부분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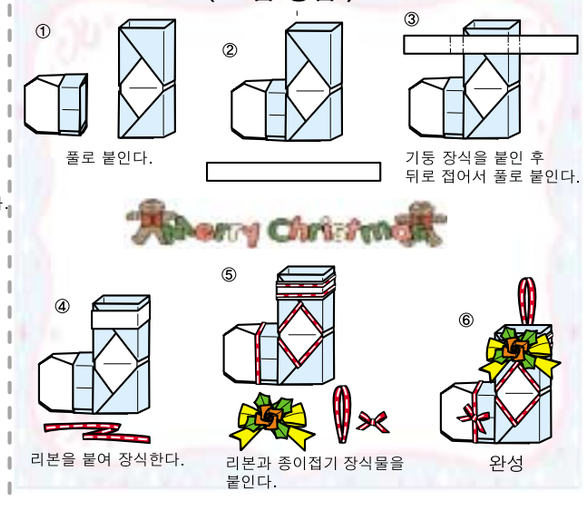


장화의 기둥 장식(12.5×25㎝, 흰색 종이)

♣ 흰색 부분이 열매 무늬 부분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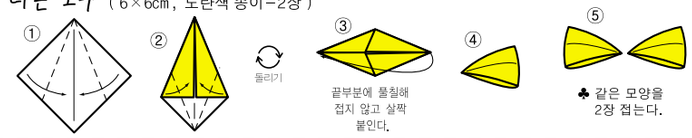
약간 벌려서 3등분 접기 한다.

(조립 방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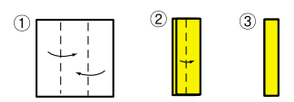


양말 모양의 선물 주머니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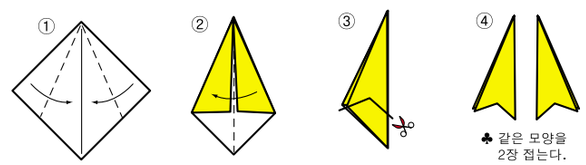
리본 보우 (6×6cm, 노란색 종이-2장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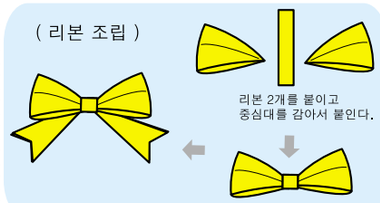
리본 중심대 (6×6cm, 노란색 종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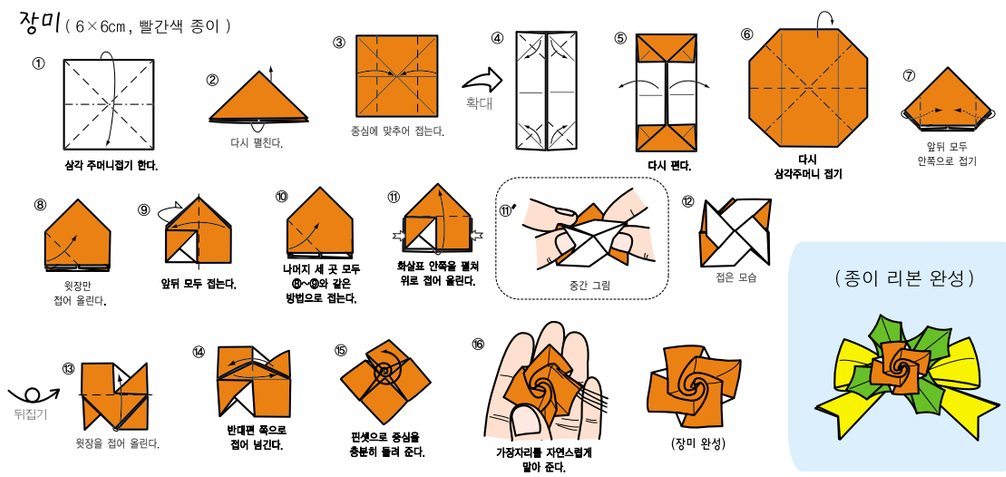
리본 날개 (6×6cm, 노란색 종이-2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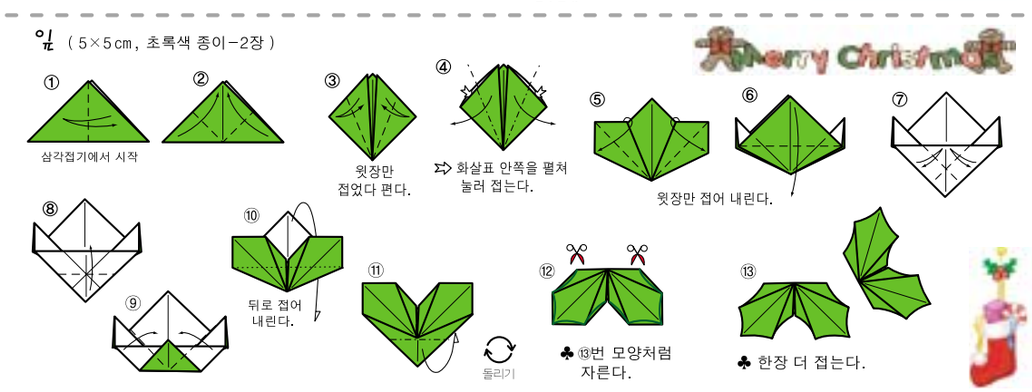


(리본 조립)



장미 (6×6cm, 빨간색 종이)



(종이 리본 완성)

잎 (5×5cm, 초록색 종이-2장)